

온유는 침묵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불의와 부정 같은 불편한 것에 눈감는 도덕적인 무관심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물러서는 것이나 비겁함도 온유가 아닙니다. 존 맥아더는 온유에 대해 ‘부드러움, 억제된 성품일 뿐 연약함이나 무기력이 아니다. 이는 제어된 힘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온유는 고난과 억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으로 대응하고 싶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침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침묵’하며 외면하고 싶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불의한 것에 맞서 직언해야 합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주시하던 자들을 향해(마 3:4), 율법으로 의무를 피하려는 자들을 향해(마 7:13-14),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을 향해 노하며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마 10:14). 예수님의 분노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배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권위 있는 표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 불이익과 미움 당함과 육신의 피로를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무엇에 분노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에 분노해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 생명을 경시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찾아 악을 무마하려는 사안들에 분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 세리, 죄인들에게까지 늘 곁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리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할 때 갈등과 불이익, 불화와 미움 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 15:18). 그럼에도 온유한 자는 명예를 메고 예수님을 배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나는 예수님이처럼 온유한 사람입니까?

- ① 침묵할 것에 침묵하며 분노할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 ② 온유함으로 인해 젊어져야 할 명예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